

메르스에 지역공동체 '불신 감염'

“이웃이 삼성서울병원서 진료 받았다” 주민이 신고

잠복기 지나 격리 해제된 이웃과도 접촉 꺼려

전남도, 능동감시 지속·주민 홍보 등 대책마련 분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자택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웃을 마을주민이 신고하거나 잠복기가 지나 격리 해제된 이웃과 접촉을 꺼리는 등 메르스가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라도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137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삼성병원 이송요원과 접촉한 도민 34명이 관리대상에 추가되면서 접촉자가 686명이 돼 16일보다 48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과 접촉한 도민 34명 가운데 자택격리자는 8명, 능동감시 대상자는 23명, 타 시·도 병원

입원자는 3명이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목포(5명), 여수·무안(4명), 고흥·보성·신안·장흥(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삼성서울병원에 갔다가 메르스 양성 반응으로 판정된 대구 공무원이 지난달 31일 순천 선암사를 찾아 4시간 30분 머무른 사실이 밝혀져 전남도와 순천시역학조사반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접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무안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은 60대 주민을 이웃주민들이 지난 13일 “메르스 감염 위험이

높다”며 보건소에 신고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 60대 주민에 대해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번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잠복기인 14일이 지나 자택격리가 해제된 주민에 대한 접촉 거부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메르스의 잠복기가 14일 이상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안해진 주민들이 아예 관련 주민을 접촉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격리해제가 됐다고 해도 능동감시를 당분간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메르스 관련 관리대상자 686명 가운데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확진환자 A(64)씨와 관련된 보성군 관리대상자는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7일간 능동감시하기로 했다. 보성지역 자택격리자는 188명, 능동감시 대상자는 312명, 격리가 해제된 주민은 33명 등 보성지역 메르스 관리대상자는 모두 533명

이다. 이날 전남지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남도 메르스대책관리본부는 지난 16일 전문가 연석회의를 열고 시·군의 사회장을 메르스대책관리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통·이장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국가 지정 격리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음성이 나왔다.

도 관계자는 “A씨의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2차 검사를 해 다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의료진이 완치 판정을 내려 퇴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확진환자 A씨와 여수웨딩홀에서 접촉한 뒤 발열 등의 증세가 있어 지난 14일 국가격리병상에 격리된 광양의 50대 여성은 1차 검사에 이어 17일 오후 2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돼 퇴원한 후 자택격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전당 인력 총 260명에 그칠 듯

정부 용역 423명에 크게 못미쳐...개관준비·운영에 큰 차질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인력이 총 260여명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립중앙박물관 보다 큰 문화전당을 ‘미니 조직’이 맡게돼 개관준비는 물론 장기적인 운영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17일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국가 소속 기관으로 아시아문화전당에 정부 인력 60여명이 배정되고, 공공기관으로 개편해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원은 조만간 인력 2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런 인력규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용역을 통해 제시된 문화전당의 적정 운영 인력(423명)에 크게 못미친다.

전당운영을 총괄할 정부 조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은 애초 문화전당을 운영할 정부 조직에 100여명을 배정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했으나, 행자부가 공무원 인력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애초 요청안보다 인력이 40명 가량 줄었다.

광주에서는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박학자(새정치민주연합·광주 서구갑)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의원 등이 지역민의 여망을 담아 “문화전당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시한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규모의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해온 것을 부정하는 결과여서다.

이같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국책사업으로 건립한 문화전당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인원을 배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운영인력을 축소하려는 것은 문화전당을 법인(아시아문화원)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이는 특별법에 정부가 문화전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법제화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문화전당의 건립 취지를 희석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체부는 현재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개편한 ‘아시아문화원’을 신설하고, 콘텐츠 연구·개발·유통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등 주요 집행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조직 설립과 인력 채용을 준비 중이다.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은 오는 9월 이전에 인력 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문화전당 인력규모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력규모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택가 메르스 방역 17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주택가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후임 법무장관 호남 출신 기용 가능성

고흥 김현웅·순천 소병철 등 4~5명 압축

여야가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후임 법무장관 인선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된 뒤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 후임 법무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공석인 법무장관 후보에 사법연수원 기수에 얽매지 않고 법무행정 경험에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액 연봉을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인사를 배제한다는 인선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 총리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3기이고 김진태 검찰총장이 연수원 14기인 점을 고려해 적임자를 물색했으나 여의치 않아 김 총장의 후배 기수가 법무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최근 김현웅(56·16기) 서울고검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고흥 출신으로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을 가진 김 고검장이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등 특수수사 경험도 있어 정부의 사정 드러 이브에도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평이다.

같은 맥락에서 순천이 고향인 소병철(57·15기) 전 법무연수원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 인사를 낙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현재 김 총장이 PK(부산·경남) 출신이고, 김수남(56·16기) 대검장장과 박성재(52·17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요직이 TK(대구·경북) 인사라는 점을 고려한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장흥 출신의 이귀남(64·12기) 전 법무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해 집권 중반 이후 법무행정을 맡긴 전례가 있다.

이외에 김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안창호(58) 헌법재판소 재판관, 광상욱(56) 감사원 감사위원 등도 꾸준히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홍콩 메르스 전문가 “한국 의료쇼핑·음압병실 부족 문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합동 조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홍콩의 메르스 전문가가 한국의 의료 쇼핑 문화와 음압 병실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9~13일 WHO 조사단 활동을 한 데이비드 후이(許樹昌) 홍콩중문대

내과·약물치료학부 교수는 16일(현지 시간)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자 며칠 내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병원을 바꾸면 전염병을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쉽게 옮길 수 있다”며 한국 내 의료 쇼핑 문화가 메르스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후이 교수는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한 격리 병상 600개 가운데 100개만 음압 시설(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병상)으로, 기압 차를 이용해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에서만 유입되

도록 설계됨을 갖춘 병상”이라며 한국 내 격리 시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후이 교수는 지난 6일에도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들을 의무적으로 격리하고 메르스 환자 치료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층(평일 10:00)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축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